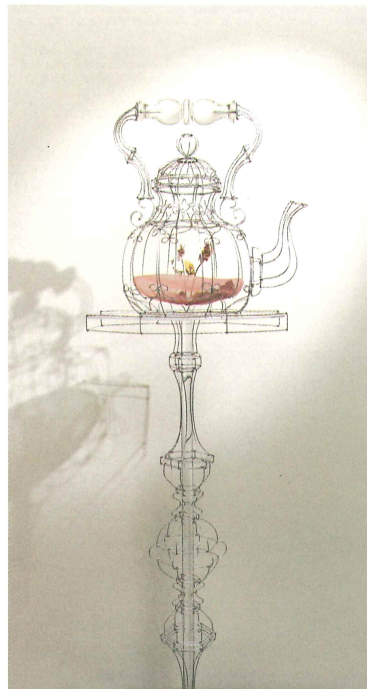


LEE JIMIN



< Brewing the Nature >
2022

leejiminwork@gmail.com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イ・ジミン個展 / 続く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

2024 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 No.1

イ・ジミン 個展 Lee Jimin Solo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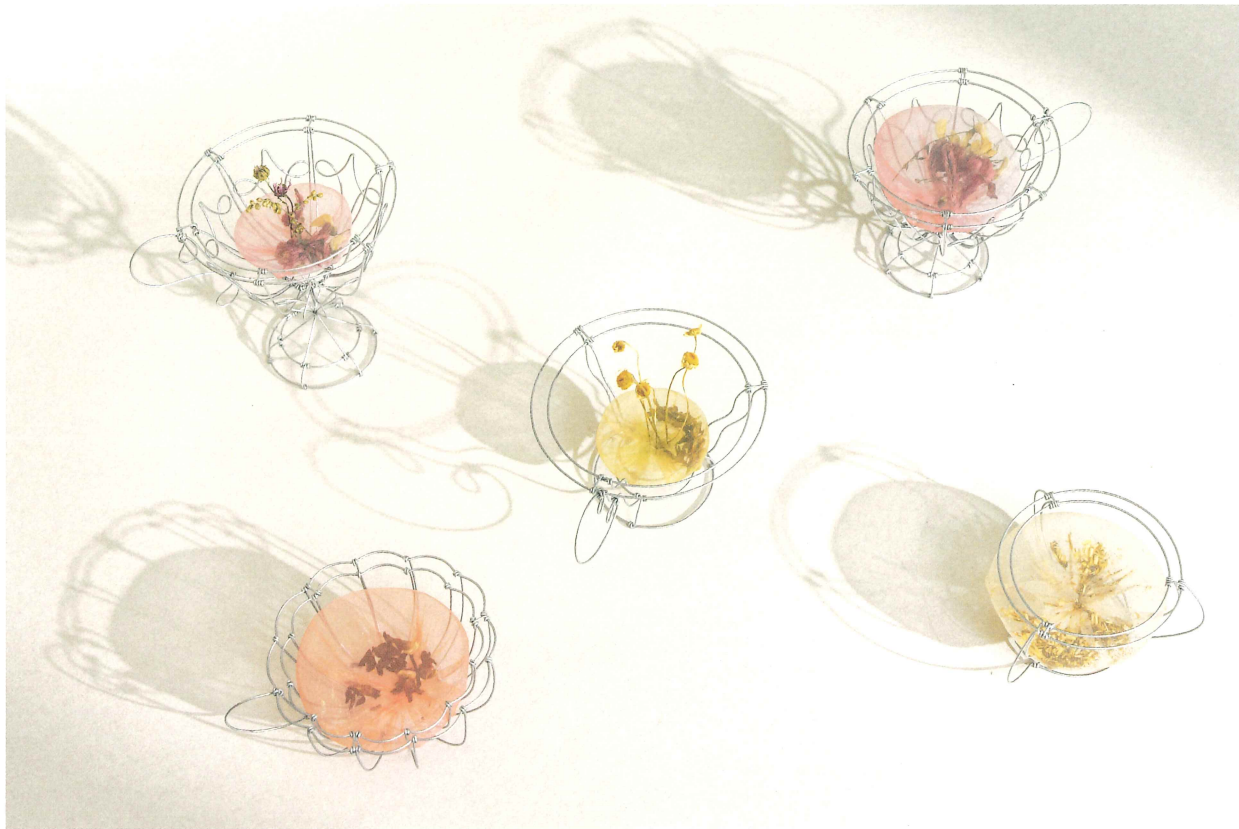


続く

2024年5月17日(金) - 19日(日)

10:00 - 17:00

Marunuma Art Park
2024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1



< Brewing the Nature > 2022

続く

皆さんは、折り紙を折った幼少期のことを覚えているだろうか。筆者の個人的な折り紙体験の記憶は、どこかの誰かに教わりながら折り鶴を折り、小さな達成感を得たことであった。手順に沿って一枚の紙を折り曲げながら立ち上がった形は誰もが知っている日常的な造形物として形づくられる。一般的には3～4歳前後からしっかりと紙を折れるようになり、親の真似をしながらコップやチューリップなど簡単なものが作れるようになってゆくらしい。子供の教育としてだけでなく、現在、折り紙は社会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ゆく手段として、医療や工学など、さまざまな現場で取り入れられている。

イ・ジミンは子供の頃よく折り紙で遊んだという。現在彼女が取り組んでいる作品は針金と布で造られたティーセットであり、素材は違うが思考は折り紙と類似している。端正で無駄のない曲線で構成されたフォルムは針金で表現されているため実質的なボリュームは持たない。しかしながら空中に引かれた輪郭は日常の記憶として実体化される。これは折り紙の持つ形の抽象性にも共通したものである。また、彼女が扱う布は透けていて、質感よりもそれを構成している糸に注意力が向けられる。ティーポット内部に縦糸と横糸で織り成された「お茶」は繊細な糸の柱で造られた小さな建築物のようである。

今回、彼女が日本に来て特に興味を持ったのが茶道である。ティーポットをモチーフに作品制作のテーマにしている彼女にとっては当然と言えるだろう。茶器の形や作法、茶室の在り方など歴史的な文脈からひも解かれる集合知を語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が、千利休の言葉でもある「茶は服のよきように点て」を実践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現代語訳すると、「茶は飲む人にとって、ちょうど良い加減で点てなさい」といった意味であり、単に相手の好みに合わせるのではなく、その時、その場所で相手の気持ちを察してよく考えるとい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服」は「飲む」という意味もあり、大学でテキスタイルを学んだ彼女が作品の素材で布を選んだことも偶然ではないような気がする。

「永遠であり続けるためには、変化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120年ほど前に出版された「茶の本」に書かれた岡倉天心の言葉である。この言葉を意識してイ・ジミンの作品を目の前にするとき、透過する茶器の中で混ざり合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個人や日韓両国の文化にも焦点を当てる。今この時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に五感を研ぎ澄ましながら、彼女の作品と向き合い、考えてみたいと思う。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계속되다

여러분은 종이접기를 하던 유소년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필자의 개인적인 종이접기 체험의 기억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종이학을 접고 작은 달성감을 얻은 것이었다. 순서에 맞게 한장의 종이를 접어 구부리며 세워진 형태는 누구나 알고있는 일상적인 조형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3~4세 전후부터 제대로 종이를 접을 수 있게되고 부모의 흉내를 내면서 컵이나 튜립 등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어린이의 교육만이 아니고 현재 종이접기는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써 의료와 공학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지민은 어린시절 자주 종이접기를 하며 놀았다고한다. 현재 그녀가 몰두하고 있는 작품은 철사와 천으로 만들어진 차 세트로, 소재는 다르지만 그 사고는 종이접기와 비슷하다. 단정하고 헛됨이 없는 곡선으로 구성된 형태는 철사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피는 갖고있지 않다. 그러나 공간에 그어진 윤곽은 일상의 기억을 통해서 실체화 된다. 이것은 종이접기가 가진 형태의 추상성과도 공통된 것이다. 또한 그녀가 다루는 천은 안이 비쳐보이고, 질감보다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실 바느질에 주의가 집중되어진다. 티팟 내부에 종 바느질과 횡 바느질로 엮어져 구성된 ‘차’는 섬세한 바느질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작은 건축물처럼 보인다.

이번에 그녀가 일본에 와서 특히 흥미를 가진 것은 ‘차도’ 라고한다. 티팟을 모티브로 작품제작의 테마로 하고있던 그녀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차기의 형태와 제작법, 차실이 가진 본연의 자세 등 역사적 맥락에서 실타래를 풀어내듯 그 집합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센노리큐가 말한 “차는 옷에 맞게 타라”를 실천하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언어로 해석하면 “차는 마시는 이에게 알맞게 타라”라고하는 의미인데 단순히 상대의 기호에 맞추라는것이 아닌, 그때 그장소에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잘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옷’은 ‘마시다’라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대학에서 텍스타일을 전공한 그녀가 작품의 소재로 천을 고른것도 우연은 아닌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120여년전 출판된 ‘차의 책’에 적힌 오카쿠라 텐신의 말이다. 이 말을 의식하고 이지민의 작품을 눈앞에서 보았을때, 투과하는 차기의 속에서 서로 어울어진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나 한일양국의 문화에도 초점을 맞추고있다. 지금 이시대에 생각하여야만 하는 과제에 오감을 날카롭게 세워가면서 그녀의 작품과 마주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도쿄조형대학
교수 오하시 히로시

< Would you like a drink? > 2021

